

노동자의 삶 저절로 알도록

‘일하는 아이’를 바라는 집

부천여성노동자회 회장 최순영(38)씨와 부천 YMCA 총무 황주석(40)씨 부부는 자신들이 평생을 걸고 하고 있는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필요성을 아들 민재(11)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줄 것을 바란다.

“엄마, 노동자들은 참 바보같은 애, 사장은 하나뿐이고 노동자들은 그렇게 많은데 늘 사장한테 지기만 해요?”

“노동자들이 숫자는 많지만 단결이 잘 안돼서 그래. 엄마가 이렇게 바쁜 건 노동자들 단결을 위해서 노동운동을 하기 때문이란단다.”

이들 부부가 처음 만난 것은 76년 크리스찬아카데미 노조간부 교육에서였다. YH노동조합 지부장이었던 최씨와 한신대 재학중 제적돼, 공장에 들어

는 데 신경을 쓴다.

“민재야, 엄마가 너무 피곤하니가 네가 설거지 좀 할래?” 하면 민재는 얼른 일어나 아주 재미있어하며 그릇을 씻는다. 기자가 민재네 집을 찾아가 낱 함께 먹은 과일점心和 커피잔도 민재가 깨끗이 씻어 얹어 뒀다.

요즘 민재는 또하나의 즐거

설거지도 잘 하는 민재는 탐험가가 되고 싶다고 한다. 아버지는 “남이 안가본 길을 가보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해, 대견해 한다.

〈이정우 기자〉

집에 돌아오면 꼭 목조에게 모이를 주고 물도 떠다 준다.

엄마와 무슨 이야기할 때 제일 재미있느냐고 물으니 “강아지 이야기요”한다. 저녁마다 엄마랑 누워 “무슨 강아지를 살까” “강아지가 똥싸면 어떻게 할까” 등등을 이야기하면 절로 신바람이 난단다.

늘 바깥일로 바쁜 이들이 자녀양육을 위해 꿈꾸는 것은 뜻 맞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생활이다.

도 하다.

어렸을 적 민재는 이웃집에 맡길 때마다 “오늘은 누구집에 있어야 돼?” “나 오늘 준호네 집에 맡겨 줘. 호영이네 집은 싫어”하고 투정을 부려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사회성이 잘 길러진 것 같아 위안을 삼았다”고 최씨는 말했다.

노동조합원 교육을 위해 저녁 6시에 집을 다시 나서는 엄마에게 “잘 다녀오세요”하고 씩씩하게 말하는 민재는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동네 꼬마들을 잘 돌보기로 소문나 있다.

“우리는 민재가 ‘머리만 굴리’기보다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마음이 넉넉한 아이로 자란다면 더 바랄 게 없지요.”

〈김미경 기자〉



우리집 가정교육
소신껏 키운다

〈5〉

가 노동운동을 준비하고 있던 황씨는 평생 노동동지로서 살기로 약속, 아이를 안갯기로 하고 수술까지 했지만 실수(?)로 갖게 됐다고 웃으며 털어놓는다.

“아이에게 노동운동의 중요성을 애써 설명하려 하진 않습니다. 노동운동이 따로 있는 건가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지요.”

부모의 이런 태도 탓인지 민재에겐 노동운동이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자리잡혀 있다.

임신 6개월의 몸인 채 79년 YH사건으로 투옥됐던 최씨는 출감 뒤 태어난 민재를 들쳐 업고 노동자들의 시위현장을 쫓아다녔다.

민재가 걸음을 걷게 되면서부터는 대중집회장에도 손목을 잡고 함께 갔다.

이들 부부는 무엇보다도 아이가 생활 속에서 ‘노동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하

음이 생겼다. 충청북도 홍천에서 농사짓는 할아버지가 민재 뒤편으로 비닐하우스 사이의 밭에 토마토를 심어 기르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방학중에는 거의 홍천에서 지내며 할아버지와 함께 농사짓는 일을 하는 민재는 농사일이 즐겁지만 하다.

“제가 심은 토마토가 잘 자랐나 빨리 내려가 보고 싶어요.”

지난 1월 열번째 생일에 민재는 부모님으로부터 ‘목조’ 두마리를 선물받아 열심히 모이를 주면서 기르고 있다.

부모님이 새를 잘 기르면 내년에는 강아지를 사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모이주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고 투덜대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여러 가족중에서 아이 돌볼 사람을 정하고, 식사도 공동으로 해결하는 공동체생활의 꿈을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이들은 늘 외삼촌, 고종사촌이모, 엄마 친구들과 함께 살면서 공동체를 준비하고 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특히 부모가 양육문제를 전부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함께 키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최씨는 민재를 키우면서 가족에게만 책임지워진 자녀양육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뼈저리게 체험했기에 탁아소설립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최씨가 회장으로 있는 부천여성노동자회에서는 88년부터 실제 ‘튼튼이 아가방’이라는 탁아소를 개설, 운영해 오고 있기

“실천이 중요”...설거지·농사일 맡겨